

나의 꿈과 만나다

2014 커리어패스 사례집

나의 꿈과 만나다



대안학교
분야 1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1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적성에 맞고 보람을 느끼는 직업을 선택

• 박준호 장애인학교 특수교사 ... 07

02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해요

• 심은아 유엔난민기구 ... 15

03

답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 박소현 인천문화재단 기획사업팀 ... 31

04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노력할 가치가 있다

• 노재웅 회계사 ... 39

05

내 나라, 내 가족을 위해 오늘도 바다를 지킨다

• 이서연 해군대위 ... 55

06

사람을 만나는 일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

• 이재은 사회운동가 ... 65



07

많은 생각, 많은 경험, 그리고 자신감

• 김강산 아힘나평화학교 역사 교사 ... 75

08

이주 여성들에게 친정집이 되어주기 위해

• 이은선 이주여성사업팀장 ... 85

09

비전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정충만 한옥목수 ... 99

10

사람에겐 다 때가 있기에 쫓기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 박시내 특수학교 교사 ... 109

11

환자가 아닌 사람을 치료하다

• 김윤하 물리치료사 ... 123

01

장애인학교 특수교사가 된 산마을고등학교 졸업생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적성에 맞고 보람을 느끼는
직업을 선택



장애인학교 특수교사

박준호

- **누구의 이야기?** 사회체육을 전공하고 특수교육학과로 편입하여 장애인학교 특수 교사가 된 남자
- **하는 일은?** 특수교육(일반사회)
- **꿈을 이룬 과정** 산마을고등학교(대안학교) 졸업→사회체육학과 입학→휴학 후 유아 체육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장애인 종합복지관 체육을 맡음→ 군 입대→복학 후 학업에 매진하여 중등 특수교육학과로 편입→중등 특수교사로 임용
- **장래 포부** 행복하게 사는 것
- **그의 한마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요



인천 강화도에 있는 산마을고등학교(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장애인학교에 특수교사로 임용된 박준호 씨는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다. 이 학교는 일반반과 도움반으로 나뉘어 있어서 일반반에서 진도를 따라가기에 부족한 과목을 도움반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일반반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배울 때 장애 학생들은 도움반에 내려와 더하기, 빼기 수업을 받는다.

박준호 선생님은 통합과정으로 지원하고 임용되었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가르치고 담임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정보부실에서 인터넷 지원을 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료를 조사하고 취합하는 일도 한다. 하루 종일 바쁘지만 적성에 맞는 일이라 만족하며 근무하고 있다.

전단지 돌리기부터 텔레마케터까지

박준호 선생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때부터 전단지 돌리기, 주유소 아르바이트, 신문 배달,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텔레마케팅 등 어린 나이에 여러 사회 경험을 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그에게는 맹목적인 학교 규제가 갑갑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이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의 체벌을 수긍하며 학교생활을 견뎌 나가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대안학교를 알게 되어 산마을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을 만큼 적은 수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였는데, 그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저한테는 대안학교가 맞았어요. 일반학교보다 자유롭고 좀 더 표현할 수 있었고, 좀 더 말할 수 있었고, 좀 더 들을 수 있었어요.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던 점이 좋았어요. 공동체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일반학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연극, 농업, 지리산 종주 등을 경험했고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을 수 있었죠.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교육도 있고 단점을 장점화 해주거나 단점을 고치는 교육도 있어요. 저한테 대안학교 교육은 단점을 고칠 수 있었던 교육이었어요. 꼭 대안학교라서 좋았다기보다는 학생마다 학교를 통해 변화하는 부분이 다 다를 텐데 저한테는 소수로 진행되는 대안학교 방식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일이 힘들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박준호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나쁜 사람들을 혼내 주는 경찰이 되고 싶은 적도 있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따르던 형과 함께 놀고 싶어서 운동부에 들어갔다. 그렇게 체육을 시작해 입시체육을 준비했지만 좋아하는 마음만큼 운동을 잘하지는 못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2년제 사회체육학과를 입학하고 1학년 1학기에 휴학을 한 뒤 유치원에서 유아체육 아르바이트를 했다.

“유치원에서 유아체육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장애인과 만났어요. 10개월가량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군대를 가기 위해 그만두었죠.”

그는 복지관에서 일하며 ‘일이 힘들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 관련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군대 제대 후 그는 사회복지나 특수교육학과로 편입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사회복지학과와 특수교육학과에 복수 지원하여 두 분야 모두 합격했지만 근무 환경이 조금 더 나은 특수교육을 선택하여 3학년으로 편입했다.

착한 사람이라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크고 따뜻한 사

람일 거라는 선입견이 많아요. 하지만 그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 일이 적성에 맞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선택했을 뿐 특별히 남보다 착해서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신변처리를 스스로 못하거나 옆에 보호자가 없으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장애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 중에는 장애 자녀를 둔 분이 많다. 하지만 박준호 선생님은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던 중 발견한 직업이었다. 꼭 누군가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일에 10단계가 있다면 현재는 1단계까지밖에 오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는 이 분야에서 일하겠다고 마음먹는 학생들이 있다면 특수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을 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특수교육에는 유아, 초등, 중고등 과정이 있고 특수체육도 있어요. 어느 분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부를 잘해야 해요. 공부를 잘하면 눈앞에 보다 다양한 길이 펼쳐지고 그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요.”

마음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공부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박준호 선생님은 반듯한 인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권한다. 그는 꿈이 많았다. 경찰

이나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고 시인이 되고 싶기도 했다.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사회체육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일들을 헤쳐 나가면서 느낀 것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다.

“자신의 꿈과 목표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 보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좌절하지 말고 다른 목표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고 또 잘 안 되는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제게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어요.”

그 역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일만이 목표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하루하루 마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다가 기회가 오면 그 기회에 도전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직장생활 초년생인 그는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잘 맞아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나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끊임 없이 자문한다. ‘좀 더 잘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서 장애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

02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산청 간디학교 졸업생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해요



유엔난민기구

심은아

- **누구의 이야기?** 고등학교 때 배낭여행에서 난민들을 만난 이후 전 세계의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유목민을 자처하는 여자

- **하는 일은?** 유엔난민기구 소속으로 현재 인도에서 난민 인정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음

- **꿈을 이룬 과정** 어린 시절 미국에서 생활→귀국해 산청 간디학교 입학→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수시 합격→고등학교 3학년 때 1년간 배낭여행→NGO 단체 ‘피난처’에서 활동→런던에 있는 대학에서 개발학과와 사회 인류학 공부→영국 대학난민 동아리 대표→대학교 2학년 때 유엔난민기구 말레이시아에서 인턴십→옥스포드 대학원 입학→유엔난민기구 제네바에서 스카우트 제의→유엔난민기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입사→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이라크, 케냐 등에서 근무

- **장래 포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자

- **그의 한마디** 이 세계에 사는 지구인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처럼 자신의 국가를 떠나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와서 보호를 받고자 난민 신청을 한다. 그러면 유엔 난민기구는 그들과 장시간 인터뷰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난민 인정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판결문을 법무관에게 제출한다. 심은아 씨는 제출된 판결문을 보고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심사를 하고 있다.

심은아 씨가 어떻게 유엔기구에서 활동하게 되었는지, 유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잠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심은아 씨가 유엔난민기구 소속으로 일한 지 6년, 거의 1년에 한 번씩 나라를 옮겨 다니고 있다. 그 이유는 법적 구호와 난민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여러 정부기관 관료들에게 교육시키는 일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난민조약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에 유엔난민기구가 들어가 임시로 일을 해주면서 교육을 병행해 그 나라 정부 기관 스스로가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제법상 여러 나라가 난민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 단계지만 설사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꼭 지켜야 하는 상호간의 약속은 있어요. 그것이 국제관습법(International customary law, 국가 간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이고 그중에 하나가 농르플망 원칙(non-refoulement principle, 강제송환 금지 규정)이에요. 정치, 인종, 종교, 국적 등 이유를 막론하고 고국을 떠나 망명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돌아갔을 때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억지로 보내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받아들이기엔 불편한 정치적 이유가 있거나 국가 이익에 상반되는 난민이라도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가 간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나라가 있다면 유엔난민기구가 여러 국가와 회의를 통해서 난민을 제3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북한이 전쟁을 일으

킨다면 우리도 난민이 될지 모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 잠시만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할지 몰라요. 물론 평생 살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괜찮아질 때까지만 여기 있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난민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잠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 뿐이에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안학교에

심은아 씨는 어릴 적 낮을 많이 가렸고 학교에서는 앞서지도 뒤지지도 않는 평범한 아이였다. 좋은 성적을 강요하지 않았던 부모님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분이었고, 그녀가 가고 싶다고 졸랐던 미술학원에 보내준 것이 사교육의 전부였다.

유학을 떠났던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 이메일이 없던 시절, 편지를 쓰면 열흘이 넘게 걸려 도착했지만 부모님은 항상 편지에 좋은 말씀을 써서 답장을 보내 주셨다.

“열일곱 살에 귀국하여 제가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셨던 어머니는 TV에서 간디학교 다큐멘터리를 보고 딸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에 저를 데리고 견학을 가셨어요.”

부모님은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녀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기에 대안학교 입학에 권유했다. 입학을 위해서는 간단한 시험

을 치러야 했는데 그중 하나,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친구들끼리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문제였다. 자신만의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

“대안학교였지만 인가받은 학교였기 때문에 싫어도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일반 학교처럼 문제집 푸는 수업은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재미도 없었어요. 한국의 역사나 사회, 한국의 풍습, 전통음악 등은 재미있었지만 칠판에 뿡뿡이 쓰는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면 선생님께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힘든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교장선생님이 수업에 빠지려면 스스로 시간표를 잘 짜서 제안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심은아 씨는 대안학교 중학생 후배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만들어서 제안서에 넣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체수업’은 학교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 다른 학생들도 대체수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들을 위해 동아리를 만들어서 역사 답사를 다니고, 동네 잔치에서 풍물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는 행사도 가졌다. 선생님들이 다니던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기도 하면서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어나갔다. 그녀는 대안학교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자신의 시

간을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주어진 교육 과정 대신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계획을 세워야 하고 누군가를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학교에서 매주 있었던 초청 강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왔다. 경상남도 산청이라는 시골에 있는 학교였지만 학교 밖에는 커다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강연들이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한국 분들이나 외국인들도 왔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통역을 맡았다.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 체험을 하는 캠프를 했는데 한국위원회 분이 저에게 통역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방학 때 학교에 남아 통역을 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인연으로 한국위원회 분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더 큰 곳으로 나가 한국의 위상을 알려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때는 장난치며 웃어 넘겼지만 그분을 통해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유네스코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열릴 때면 잊지 않고 연락을 주셔서 참여하게 해주셨다. 그녀는 그런 행사들을 통해 한국문화를 외국인에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익숙해졌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키울 수 있었다.

1년 동안 배낭여행에서 만난 난민들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지만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심은아씨는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낭여행을 떠났다.

“1년 동안 배낭여행을 하면서 중국, 러시아, 북경 등을 돌아다니면서 탈북자뿐만 아니라 네팔에 있는 소수민족, 중국의 티베트족 등 많은 난민들을 만났어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네팔, 중국, 티베트를 여행하면서 네팔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티베트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난민들의 혹독한 현실도 목격했다. 중국에서 조선자치구에서는 조선족의 현실을 보았고 탈북자들도 만났다. 그런 경험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느끼는 편안함은 그녀에게 충격이었다. ‘왜 이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할까? 내가 누리는 이 혜택은 뭐지?’하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수시를 합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었던 그녀는 민간단체에 연락을 해서 ‘나는 고등학생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을 배우고 싶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설득했다. 이후 그녀는 시간표를 짜서 7~10개의 단체에서 요일별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녀는 ‘난민들의 피난처’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난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다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때 고용주와 이주민 사이에서 제가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주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국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온 사람들도 많다는 것, 이들이 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난민조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법 시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 심은아 씨는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난민법을 도입하고 실행하는지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법에 대해 몰랐던 그녀도 법 문서를 뒤져가며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았다.

“저희 단체를 통해 제1호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이 생기자 이라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실, 영어 교실, 직업 알선 등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탈북자 문제도 야학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국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유일한 난민단체였던 ‘피난처’에서 난민들을 위해 동분서주 일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난민법을 배우러 법무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피난처’를 찾아왔다. 모르는 게 있으면 같이 나눠서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열의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따가운 지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고졸에,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여자아이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은 그녀의 말을 미더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죠. ‘최고를 보여주겠다’는 오기가 발동 하더라고요. 사회가 원하는 자격증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법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기에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

심은아 씨는 영국 소아스 대학에서 개발학과와 사회인류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유럽을 제외한 각 대륙이 어떻게 경제적·정치적으로 개발되었는지 공부했다. 또 동북아시아의 강제이주, 난민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주’에 관한 여러 분야를 공부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녀는 영국 난민 NGO 단체에서 혼자 온 아동 난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아이들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과 손짓 발짓 하면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는 동안 그녀는 영국의 대학교 연합 난민 동아리 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다른

NGO에서 영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위한 한국통역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그녀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단체는 난민 신청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 과정까지 도와주는 단체였다.

“대학교 2학년 때 유엔난민기구 말레이시아에 인턴십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대학원생부터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저는 난민 인정 절차뿐 아니라 여러 시스템을 경험해 보았으니 일하게 해달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녀는 방학 때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턴십을 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인정받아 인턴 자격으로는 하기 힘든 여러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었고 유엔난민기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럴수록 그녀는 난민법에 대해 더 확실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석사 과정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석사 과정을 옥스퍼드 대학원으로 정한 것은 명성 때문이 아니에요. 1982년, 세계 최초로 난민학과를 만든 학교인 데다가 그곳 교수님들은 ‘난민법의 신’이라고 불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런 교수님 밑에서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녀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무엇이든 궁금하면 확실히 알 때까지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골치 아픈 성격’이라고 했다. 그녀는 대학교를 다닐 때도 방송국 통역 일을 하고 대학교 내 편의점 일도 하면서 학비를 보태 겨우겨우 졸업을 했는데, 옥스퍼드 대학원은 수업료가 비싸기로 유명한지라 부모님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학원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긴 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포기란 단어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라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대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대신 시집 갈 때는 스스로 돈 벌어서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죠.”

1년 과정인 대학원에서 그녀는 국제 난민법, 국제 인권법, 국제 인도주의법과 기타 다른 국가들의 난민법에 대한 법률을 배우며 그 당시 인권단체들의 인도주의적인 구호활동들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다. 대학생일 때 인턴십을 했던 말레이시아 사무실 부장님은 그녀에게 공부를 마치면 다시 오라고 하셨지만 그녀는 그런 식의 입사는 불편했고 더군다나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장래 정규 국제공무원을 희망하는 젊은 층을 위하여 일정 기간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국제적 업무의 체험을 축적하는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에 근거하여 채용되는 자) 시험을 보기도 싫었다. 그러던 와중에 그녀가 석사 과정에서 쓴 논문이나 에세이 등이 제네바 본부에 알려져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녀는 유엔난민기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난민들을 돕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는 강했다.

“난민 심사를 하는 것은 국가만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예요. 시민권이나 비자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죠. 저는 한 국가에서 일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유엔난민기구가 국가를 대신해 난민들에게 법적 지위를 줄 수 있어요. 유엔난민기구를 선택해서 온 이유는 유엔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한다는 것

유엔기구 혹은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인적으로라도 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심은아 씨가 전하는 말이 있다.

“미래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내가 이 세계에서 사는 지구인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장점이 무엇이고 기여를 하고 싶은 도구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해요. 그런데 때로 그것이 돈을 못 버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었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깊게 숨을 쉬고 좀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학생들에게 ‘내공’을 쌓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고등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기술을 터득해야 하고, 어

편 창업을 해야 하는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을 따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이 내공을 쌓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엔을 목표로 하거나 인권단체,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면 뚜렷한 가치관을 가져야 해요. 유니세프 포스터를 보면서 ‘후진국 아이들, 난민들,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보다 먼저, 우리 모두 동등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존엄성 존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성을 갖춰야 해요.”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편하고 화려한 직업이 아니다. 난민들을 보호하는 기구다 보니 난민이나 유목민과 함께 생활해야 할 때가 많다. 그녀는 ‘글로벌한 유목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캠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물론 10킬로미터 밖에서 로켓이 떨어지고 자동차가 폭발되기도 하는 위험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일이라고 한다.

“일시적으로, 가벼운 일들은 마음과 열정만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길 테니, 반드시 전문성을 가져야 해요. 원인 분석,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말이죠. 당연히 의사나 판검사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함을 물론이고 전략을 가지고 일해야 해요. 사실은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제네바에서 하이힐에 정장을 차려입고 전 세계 정상들과 회의를 하는 것이 유엔기구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다. 생활은 불규

척하고 질병에 걸린 난민들에게서 각종 전염병이 옮겨 고생하기도 한다.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으면 더욱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은아 씨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힘들더라도 제가 움직임으로써 난민들이 혜택을 얻잖아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편하게 쉬면서 사치를 부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글로벌하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활동을 하면 할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민 수가 많아져요. 반대로, 제가 쉬고 있는 동안 그 만큼의 인원이 혜택을 못 받게 되죠.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인생이잖아요. 제가 조금 편하려고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움직이자고 항상 생각해요.”

심은아 씨는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03

문화예술 분야의 마당발을 꿈꾸는 산청 간디학교 졸업생

답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인천문화재단 기획사업팀

박소현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인천문화재단에서 문화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여자

- **하는 일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만나는 시민 참여형 문화 사업을 기획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미술로 예고 입시 준비→경남 산청의 간디학교(대안학교)→호주 어학연수→경상광고학부(광고홍보학과, 경영학과)→대학원(문화예술경영)→도슨트 자원봉사→인천문화재단 기획사업팀

- **장래 포부** 문화예술 분야에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 **그의 한마디** 대안이 답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닌 것이다



박소현씨는 1998년 처음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간디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이다. 한 때 그림에 흥미를 느껴 예고 입시를 준비하기도 했던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 문화와 관련된 일을 꿈꿨다.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지금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만든 공공기관인 인천문화재단 기획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참여형 문화 사업을 기획하는 일로, 예술가와 시민들의 만남을 위함이 문화로 만나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다. 그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지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들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거침없이 달려온 그녀의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대안학교에 갔어요

중학생이었던 소현씨는 예고 입시 준비를 위해 미술학원에 다녔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비슷한 그림을 그려야하는 학원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그녀는 결국 예고 진학을 포기했다. 이후 일반고 진학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지만 그 역시 그녀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다.

“제가 미술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영향이 컸어요. 좋아하는 일을 직접 하지는 못해도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을 했었죠. 고등학생 때부터 문화랑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님은 그녀에게 대안학교를 제안했다.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그녀는 대안학교 1세대였다.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강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었던 거죠. 교육운동 활동을 하시던 어머니가 주위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셨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춘기를 보내면서 오히려 다들 일이 없어졌어요

소현씨는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한 ‘간디학교’에 들어갔다. 그녀가 여러 대안학교 중에서 간디학교를 선택한 것은 인문계고등학교로 인가 받은 학교이기 때문이었다. 인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와는 다른 간디학교의 교육과정은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

“간디학교를 들어가려면 캠프 같은 일정을 수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배웠던 건 국영수 같은 교과목이 아니라 빵 만들기라든지 의 식주 관련 교과목이었어요.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준다는 점이 호기심을 자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시작된 이후 좀처럼 부모님과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 한 채 간디학교에 들어왔던 그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부모님과의 갈등을 조금씩 풀어갔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면 부모님은 적이 될 수 없어요. 멀리 떨어져 생활을 하는 부모님보다는 같이 있는 친구라든지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고 큰 숙제가 되죠. 사춘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하다보니 두려워져서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시기인데, 당사자도 부모님도 힘들 때잖아요. 그런 시기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보니 오히려 부모님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서툰 손길이었지만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나갔어요

간디학교에서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 있어 많은 것을 배우고, 시험해보고, 도전해볼 수 시간이었다. 그녀가 입학했을 당시 간디학교의 건물과 시설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할 것 없이 팔을 걷고 나서,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모두 힘을 보탰다.

“10월 10일이 학교개교기념일이예요. 간디학교 탄생일이라고 ‘간탄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날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갈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학생들끼리 결정을 했어요. 서로 의견을 내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많은 걸 배웠죠.”

한 학년의 정원이 20명이었던 간디학교의 1회 졸업생은 소현씨를 포함해 16명뿐이었다.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마련해야 하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일반고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었지만 서툰 손길로 하나씩 일구어 나가고, 결정해가는 힘든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걸 경험하고, 배웠다고 말했다.

“생활과 삶의 리듬을 스스로 만들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싫어하는 것, 힘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것도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닦혔을 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활은 즐거웠지만 그만큼 고민도 많았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잠시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던 그녀는 졸업 후 호텔 매니지먼트를 공부하기 위한 유학길에 오를 계획이었지만 당시 IMF 경제위기로 국내 사정이 좋지 않았던 탓에 유학을 미뤄야만 했다. 지금의 대안학교들의 경우와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이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당시의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했다. 간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 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그녀는 대학에 다니며 고민을 계속해나갈 생각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경상광고학부에 입학하여 광고홍보과를 선택했다.

“광고홍보학과에 지원했던 건 눈속임으로 사람들에게 제품을 사게 만드는 그런 광고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광고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보니 마케팅, 경영 쪽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경영학과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대학을 다니며 공부의 재미를 알게 된 그녀는 학과 수석(1등)을 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공부뿐만 아니라 학회 활동과 기숙사 사생회 활동 그리고 미술관에서 도슨트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너무나 외진 곳에 있었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폭이 좁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다보면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설명하는 도슨트는 새로운 시작의 첫 발걸음이었죠.”

경영학과에 다니며 마케터로 살아가는 선배들의 일하는 모습을 본 그녀는 ‘광고주의 요구에 맞춰야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 때 미술관 자원봉사를 하며 알게 된 문화예술경영 분야의 사람들을 떠올렸다.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경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문화가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

제가 한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소현씨가 대학원에 가고자 했던 그 때는 문화예술경영이라는 분야가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대학원 진학을 반대하는 부모님께 문화예술경영을 전공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문화예술경영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그녀의 의지만은 확고했다. 결국 부모님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학원 진학을 허락했다.

“미술관, 박물관 경영을 전공했지만 안정적으로 큐레이터나 학예사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부 때부터 관련 연구를 해야 하기도 했고,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위해 아주 오랜 시간의 자기 투자가 필요한데 저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소현씨는 부모님께 대학원학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대학원 조교로 일하며 돈을 벌며 대학원에 다녔다. 하루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녀로서는 적은 임금의 미술관 인턴십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운 좋게도 그녀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 즈음 각 광역문화재단의 공채를 뽑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친한 선배로부터 채용 정보를 듣게 된 그녀는 바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그녀에게 남은 건 논술시험과 면접이었다.

“지금이야 대답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문화예술 정책이 아닌 박물관, 미술관경영을 전공한 저로서는 논술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학원에 다닐 때 문화예술경영연구소의 교수님 밑에서 연구보조를 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웠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우선 관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천문화재단에서 일을 시작한 소현씨는 처음 하는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바라기 보다는 우선 관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맡아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녀는 자신이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처음 하는 직장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죠. 어렵고 힘든 선후배 관계 속에서, ‘선배들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이미 해본 사람들이다’라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실수를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목

표를 세우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3년 정도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첫 직장에서 인정받는다면 어느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렇기에 그 당시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맡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항상 지켜보면서, 기회가 되는대로 공연도 많이 보면 좋고요. 비싼 공연을 보는 것도 좋지만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문화예술 분야라고 해서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들만이 일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 하는 일은 행정 일에 가깝다. 그녀는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며 행정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마당발’이 되고 싶어요

“인맥을 쌓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문화예술 분야의 ‘마당발’이 되고 싶어요. 언제든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소현씨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분야가 매력

적이라고 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이 일은 그녀에게 있어 계속해서 무언가를 공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즐거운 일이다.

대안이 답이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대안이 아닌 거예요

“대안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시선들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사회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들도 분명 있기는 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친구들이죠. 저는 그 정도의 자신감은 없었지만요.” 소현씨는 대안이 답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안학교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법을 배웠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법도 배웠다는 그녀는 대안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대안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기를 당부했다.

“만약 일반학교를 갔다면 그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자 역할과 위치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대안이러는 건 내 방식대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04

사람들에게 미래를 제공하고 싶은 청주양업고등학교 졸업생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노력할 가치가 있다



회계사
노재웅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

- **하는 일은?** 기업 M&A를 위한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 기업 구조조정 업무

- **꿈을 이룬 과정** 청주양업고등학교(대안학교)→수학/회계학 전공→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 **장래 포부** 이 시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시간적, 경제적으로 싸게 제공하는것

- **그의 한마디**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노력할 가치가 있다

- **더 알고 싶다면** <http://www.pwc.com/kr/ko/>



노재웅 씨는 한국 가톨릭 최초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양업고등학교의 졸업생이다. 딱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기 보단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단 생각을 하며 자란 그는 군 제대 후, 돈을 벌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 합격해 회계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그가 들려준 자신의 이야기는 여태껏 그가 걸어온 행보처럼 거침 없었다.

평범한 담임이 싫어하는 중학생이었어요

14살의 중학생 재용씨는 아버지의 강요로 영국 유학을 떠나지만 IMF의 타격으로 1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주는 영국의 교육을 경험한 그에게, 정해진 공간에서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일방적인 강요나 통제에 의해 납득이 가지 않아도 억지로 무엇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간섭받는다는 게 싫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통제한다는 느낌이 싫어서 일탈 행위를 많이 했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평범한 담임이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중학교에서는 선생에게 반항하고 일탈을 일삼는 그를 귀찮아했고, 그 역시 더 이상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아들의 선언에 천주교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성당에서 알게 된 어느 고등학교 이야기를 꺼냈다.

“청주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두발도 복장도 자유고, 수업도 주입식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으니 한 번 가보지 않겠냐고 하셨죠.”

대안학교는 통제가 없어서 좋았어요

수업을 안 들어도 되고, 머리도 맘대로, 옷도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었던 대안학교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 영어시간에는 영화를 보고, 국어 시간에는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지리산 캠핑을 하거나 장애인 복지 기관에 찾아가 봉사하는 그 모든 게 학교에서의 수업이었다. 일부러 성격이 다 다른 학생들을 같은 공간에 섞어 놓는 학교의 방침은 그에게 있어 사회에 나가 겪을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과 공감 능력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사는 동안 대안학교 학생들은 입시가 아닌 인생 그 자체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등 다소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것은 학교 자체의 교육 목표가 ‘학력신장’이 아닌 ‘인성함양’이 있기에 가능한 교육이었다.

대학을 강요하지 않던 대안학교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무렵, 그는 학교에서 체득한 스스로의 인생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기 시작했고, 대학 진학을 스스로 결정지었다.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인성’은 갖췄지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교 진학을 통해 지금보다 넓은 세상에서 스스로에게 필요하다

생각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그는 졸업 후, 기숙학원에 등록해 수험 공부에 돌입했다. 한 달에 집에 가는 2박 3일을 제외하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에만 몰두했던 그의 노력이 통한 것일까. 수능학원에 들어와 처음 친 모의고사에 비해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를 두 배로 받는 성과를 얻었다. 수능 시험에선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의 점수를 받진 못했으나 그는 단 1년간의 공부를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다.

대학교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교 학과 지망에서 그는 수학과를 선택했다. 수학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과목들보다 점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는 대학에 들어와 자신에게 그런 재능이 없던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는 그사실에 좌절하기 보단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입학해서 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회계학을 복수 전공했다. 수학을 전공한 것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도움이 되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소질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다.

대인관계도 원만했으며 대학생으로서의 문화생활도 후회 없이 즐겼

다. 수학과 내의 친목 모임의 초대 회장을 맡아 지금도 동기, 후배들과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졸업하고 보니 대학교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수업을 골라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넓은 도서관의 수많은 책,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기회를 주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봤을 때, 대학교라는 곳은 사회 진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공간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저 돈이 많이 벌고 싶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의 장래 희망관엔 언제나 남들이 쓰는 그럴 듯한 직업군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딱히 과학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의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어릴 적에는 회계사란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가 처음 ‘돈’과 ‘부자’라는 개념에 눈을 뜬 것은 고등학교 졸업 무렵 부모님의 싸움을 목격하고서부터 였다.

“지금은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이 시절에 부모님이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을 자주 봤어요. 형제들이 분담해서 비용을 냈지만 비용 자체가 거액이었고 자식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입학할 무렵이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부모님은 돈 걱정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막연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회계사 공부는 훨씬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후 군대에 입대한 그는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경제 관련 베스트셀러 책들을 읽으며 회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제대 후 본격적인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스스로에게 거부감이 안 드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회계사 공부는 여태 그가 읽어온 베스트셀러나 자기계발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였다.

“시험 준비 양이 너무 방대했고 수준이 높아서 그만 두고 다른 것을 할까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실력도 쌓이는 것 같아 재미가 생겼죠. 또 스스로 선택한 것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단 생각이 들구요. 회계사 공부는 분명 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현재 대형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기업 구조조정 컨설팅이나, M&A를 위한 기업실사와 기업가치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회계법인 파트는 회계, 감사, 컨설팅.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컨설팅 일을 쉽게 설명하면 건물을 판다고 할 때 얼마에 팔아야 할지, 그 기준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회사가 돈을 잘 못 벌 때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는 일을해요.”

그는 회계사가 가져야 할 조건으로 ‘꼼꼼한 성격’과 ‘숫자 다루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 ‘융통성’ 이 세 가지를 꼽았다.

“회계사는 성격이 꼼꼼하고 숫자 다루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야 합니

다. 단순히 많다, 적다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얼마만큼 있으면 어떤 기준이 된다는 식으로 따지는 습관이 필요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 대인 관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구요.”

대안학교는 제 일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어요

재웅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 일은 답이 없는 일을 다루는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업무의 성격이 학교 시험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유연한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고,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팀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과 협력/협업하는 능력 역시 필요하다. 그는 그의 일에 있어 요구되는 능력을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은 대안학교에서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학생들끼리 코스와 준비물을 준비해 떠나는 지리산 종주 여행이나, 선생님부터 직원, 식당 아주머니까지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 참여한 전체회의 같은 경험들이 대표적인 예다.

“지리산이나 설악산을 종주하는 여행은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것과 협력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학생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2박 3일 동안의 등반에서 뒤흔치거나 다친 친구가 있으면 다른 친구가 짐을 들어주거나 부축해서 함께 갑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수차례 겪으며 구성원 각자의 장단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전체회의 역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

고 느낀 것이 전부가 아니며, 어떤 문제에 대해 정해진 답이 아닌 적절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게 했죠.”

회계사는 종착점을 향해 가는 하나의 단계예요

“사실 회계사라는 직업이 제 가슴을 뛰게 한 건 아니예요. 돈을 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뛰게 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하고, 회계나 재무 같은 경제적 지식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회계사가 가장 효과적인 직업이란 생각이 들었죠.”

‘이 시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시간적, 경제적으로 싸게 제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계사란 직업을 통해 다양한 실무를 접하고 있는 그의 최종 목표였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역시 계속 변하고 있기에 그 무언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그의 노력은 여전히 현 재진행중이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노력할 가치가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은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지만 언제나 틀리지만도 않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이

게 좋으니 하겠다' 라고 결정한 일은 목숨을 걸고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당부 했다.

“세상은 수능의 답처럼 5지선다로 나뉜 것이 아니에요.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고 정보나 어드바이스를 통해 선택했던 답이 늘 맞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옳다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틀린 답일 수도 있고, 지금 정답이 아닌 게 나중에 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건 스스로 고민해서 스스로 선택을 내린 행동에 책임지는 것뿐이죠.”

남보다 2~3년 뒤쳐졌다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뒤쳐진 시간 동안 남들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매진한다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빨리 달리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는 방법이 있고 가치관이 틀린 세상 속에서 그는 무조건 이상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이성적이지만도 않은 경계선 위에 서있는 것처럼 보였다. 현실을 해결하되 이상을 잃지 않아야 되는 균형적인 평균대 위에서 그는 앞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행동할 것이다.

05

대한민국 1%의 여성 해군장교가 된 양업고등학교 졸업생

내 나라, 내 가족을 위해
오늘도 바다를 지킨다.



해군대위

이서연

- **누구의 이야기?** 백범일지를 읽다가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던 애국심을 발견하고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 해군의 길을 걷게 된 대안학교 졸업생

- **하는 일은?** 배를 타고 전투를 수행하는 업무 및 항해분야, 선체분야, 군기 담당, 부대 관리 담당

- **꿈을 이룬 과정** 명문사립학교 진성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달 동안 가출→진성고 자퇴→대안학교 양업고등학교에 진학→수능시험 후 해군사관학교에 가기 위해 1년 간 재수생활→해군사관학교 입학

- **장래 포부** 정년까지 군 생활을 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 그리고 환경운동이나 연구를 해보는 것

- **그의 한마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다른 길을 선택하라. 그 대신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해군은 우리나라 바다로 인정되는 영해(領海)를 넘어서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아우르는 해안을 지키고 있다. 20해리(약 37km)의 영해와 그 너머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인 공해(公海)를 다니는 우리 여객선, 화물선, 어선들을 보호하고 적이 우리 영해를 넘어오지 않게끔 적을 감시하고 계속 경비를 서는 것이 해군의 주된 역할이다. 바다는 육지와는 달라서 그 경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GPS를 이용하면 바다 위에서도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서연씨는 그렇게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군 중 한 사람이다. 고민으로 가득했던 사춘기를 보내며 그녀는 입학할 예정이었던 명문고 대신 대안학교인 양업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양업고등학교를 불안과 불만으로 얼룩진 자신을 변화시키고, 꿈을 찾아주며 성장하도록 만들어준 즐겁고 행복한 학교로 기억하고 있었다.

양업고에 간 첫날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중학생 시절 서연씨는 반에서 4~5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다. 좋은 성적으로 의정부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광명시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인 진성고등학교 입학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한 그녀였지만 단 하루도 다니지 못 한 채 전학을 해야만 했다. 풍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며 친구들과 비교해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입학을 앞두고 가출을 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만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학교에 다니고자 했지만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등교 대신 전학을 권유받았다.

“입학시기가 한참이나 지났던 그 때 저를 받아줄 학교는 없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대안학교만 14군데 정도 알아봤던 것 같은데, 마침 양업고등학교에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4월부터 다니게 됐죠. 처음 면접 보러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노랑머리로 염색한 남학생이 건물 한 쪽에 멍하게 있더라고요. 할 일없이 멍하니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했죠. 처음부터 양업고가 마음에 들었어요.”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양업고는 다니는 내내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국영수 과목뿐만 아니라 종이접기, 클라리넷 연주, 일본어 회화, 비누공예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된 수업은 항상 새로움에 감동을 느끼던 그녀를 만족시키기엔 충분했다.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채워지기 시작

했다. 그러는 사이 그녀에게 특수학교선생님이라는 꿈도 생겼다. 일본 소설 『창가의 토토』(구로야나기 테츠코 작, 2004)에서 특수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게끔 하는 일본의 교육환경이 그녀는 인상 깊었던 것이었다. 그녀가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것 역시 책의 영향이었다.

“수능이 끝나고 학교에서 낙엽을 쓸다가 피도 나고 추위도 피할 겸 도서관으로 몰래 숨어들었다가 우연히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읽게 되었어요. 김구 선생이 일본경찰을 맨 손으로 물리쳤다는 이야기에 제 안에 잠들어있던 뜨거운 애국심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멋있는 제복에 흥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에 가기 위해 재수를 시작했죠.”

대안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사관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연씨가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중에 해군사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시력이 좋지 않은 그녀를 받아들여 줄 곳은 해군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회인문 및 군사학 분야 3개, 이학 분야 3개, 공학 분야 3개 등 총 9개의 전공학과가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그녀는 사회인문 및 군사학 분야의 군사전략학을 전공했다.

“문과, 이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입학하여 1학년 때는 공통을 배워

요. 문과를 선택해도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공통 과목들을 배우고 교양 과목으로 심리학 등을 기초적으로 배우고 나서 2학년이 될 때 학과가 정해지게 되죠. 문과였던 학생이 이과로 가거나, 이과였던 학생이 문과로 갈 수는 있는데 보통은 바꾸지 않아요.”

그녀는 사관학교 생활과 고된 훈련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늘 두 가지를 떠올렸다. 자신이 대한민국 1%의 여성 해군장교이며, 대안학교 졸업생이라는 사실이었다. 양업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도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녀는 대안학교 졸업생으로서 대안학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사관학교 생활을 해나갔다.

“1학년 때는 힘들고, 2학년 때는 조금 더 힘들고, 3학년 때는 더 힘들고, 4학년 때는 보다 더 힘들고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사관학교 생활 중에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야 모르는 것을 배워나가니까 힘들지 않았는데, 다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단체생활에 적응을 못 해서 1학년 때는 조금 힘들었죠. 대안학교에서의 단체생활,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군대는 다양한 분야의 일이 있는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60명이 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한 명의 대원이 뒤처지게 되면, 그 사

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 나머지 59명의 기록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신의 달리기 기록이 얼마나 좋든지간에 나머지 대원들의 부족함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해요. 자신이 한 일만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군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강한 애국심만으로는 군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 생활이 기본인 군대생활을 하는데 있어 자기주장이 강하다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거나, 조직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중도에 군인의 길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사실 군인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나오면 되요.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다만 사관학교를 오려면 45대 1, 48대 1, 50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잖아요. 자신으로 인해 정말 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해봤으면 해요. 50대 1이면 49명은 기회를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군대를 ‘작은 사회’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전투장교로서 전술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군대라는 조직 안에도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 글 쓰는 사람, 경찰, 연주자,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와 직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도 입대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로 지원이 가능해요. 직업군인은 부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거든요. 경찰 사건 조사에 관심이 있으면 헌병으로 가도 되고 군

대 내 부대원들 교육하는 정훈, 군 홍보를 위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일을 하는 공보 등이 있죠. 군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의 자유에는 조금 제약이 있지만 군대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전투 군인도 있지만 전투를 지원하는 군인도 있는 것이죠. 사명감 있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군대에도 분야가 있으니깐 군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정년이 될 때까지는 군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마음이 가는 일이 있으면 일단 부딪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시도하지 못했던 일, 선택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 크잖아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해병대와 해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해군에 왔는데도 해병대를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더라고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해보고 아니면 다른 길을 한 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노력해보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그것 역시 후회로 남거든요.”

이제 곧 전역의 기회를 앞둔 서연씨는 군인의 길보다 흥미로운 일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을 비롯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의 일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일이 생길

기 전까지는 해군으로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정년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군 생활 하고 나면 그때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위수지역이라고 해서 군인은 근무지에서 대략적으로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연구 경험이 있으니까 능력이 되면 환경운동이나 환경연구도 해보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행복했던 대안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대안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오토바이 타고 불량스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대안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안학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대안학교를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번듯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면 오히려 사람들은 대안학교에 대해 좋게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서연씨는 대안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에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안학교는 인성교육도 하고 다양한 경험과 단체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을 배우도록 하는 학교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그녀는 대안학교 졸업생이라는 소개가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가 대안학교 졸업생들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녀는 바르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자기 자신이 불량해지면 안돼요.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은 그 문제

를 밖으로 풀려고 하지 않는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의 선배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 끌어안고 앉지 말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 나아요. 자기 자신의 판단이 꼭 옳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 시절을 행복한 기억으로 떠올렸다. 그녀는 그 때 공부를 잘하거나, 잘난 친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지리산 종주 같은 것도 해봤고, 공부뿐만 아니라 공예를 배워보기도 했는데 그녀는 공부도 즐거워서 열심히 했다.

“대안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쌓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관심만 있으면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06

사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되고픈 푸른꿈고등학교 졸업생

사람을 만나는 일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



사회운동가

이재은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 **하는 일은?**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을 개발 및 청년커뮤니티 지원 관리
- **꿈을 이룬 과정** 생태환경고등학교 푸른꿈 고등학교(대안학교)→성공회대 사회학/정치학/평생교육학 전공→서울시 산하의 청년허브 기획협력팀원
- **장래 포부** 사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 **그의 한마디** 사람을 만나는 일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
- **더 알고 싶다면** <http://youthhub.kr/>

이재은

사회운동가



이재은씨는 생태환경고등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의 졸업생이다. 환경운동가로서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어머니의 영향과 대안학교에서의 경험은 그녀를 사회적 구조와 문제의 이유를 찾는 일을 하는데 큰 받침이 되었다.

서울시 산하의 청년 일자리허브 구성원으로서 청년 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머니의 권유로 대안학교를 갔어요

재은씨는 환경운동가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회의 여러 단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랐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목동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그녀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학원에 메이는 생활도 싫었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현실 역시 부담이 되었다. 캐나다 유학을 원했던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이유를 들어 캐나다 유학 대신 대안학교 진학을 권유받았다. 어머니의 추천으로 가게 된 대안학교는 무주에 위치한 생태환경고등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였다. 반딧불이 유명한 청정지역 무주에서 그녀는 남들과는 다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의 장점으로 꼽는 것들에는 자유로운 생활과 부모로부터 떨어진 기숙사 생활, 다양한 경험, 소규모 커뮤니티에서의 유대 관계 등이 있다. 그러나 마냥 좋은 것은 없듯이 반대로 생각하면 동전의 앞, 뒷면처럼 단점으로 바뀔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생각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한 학년에 정원이 25명인 학교에서 여자 학생은 8명에 불과했고 그들은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함께 지내야 했다. 한정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는 예민한 10

대였던 그녀에게 마냥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다. 가뜩이나 예민한 고등학생 시절에 친한 상대도 싸우는 상대도 한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소규모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재은씨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던진 질문이었다. 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어머니의 영향과 대안학교에서 배운 공부의 힘이 컸다.

“윤리 수업 시간에 박상옥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신변을 비판해서 자기 부모님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는 데 잡혔다. 그 사람에게 무죄를 줄 건지 유죄를 줄 건지,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였죠. 저는 부모님을 죽인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을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연 속에 있는 생태환경대안학교였기에 생태 텃밭, 민간의학, 연극 수업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자연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은 섬세한 감수성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해 대안학교에 온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흔히 대안학교에서 겪는 제2의 사춘기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을 때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20대로서 평범한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싶었다. 원래는 사회복지나 신문방송과를 전공하고 싶었던 그녀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논술 지도를 받고 대안학교 특별전형으로 성공회대에 진학했다.

대학은 저에게 첫 번째 방어막이 되어주었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구조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재은씨는 사회 과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06학번으로 입학한 그녀는 사회학과 정치학, 평생교육을 같이 전공하며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대학생활을 경험한 뒤 27살에 졸업을 했다. 전교생이 2000명 정도로 큰 편이 아닌 성공회대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다.

“전공이 사회학이었는데 단순히 사회 현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이 사회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배웠죠. 내가 사회에서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어떻게 사회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공부를 했어요.”

수업 뿐 아니라 공동체 상영 영화 일을 하고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나눔을 베풀고, 인도 전통차를 판매해 수익금을 인도 아이들에게 보내는 활동도 했다. 대학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어막이 되었다.

대안학교에서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학교에서 배웠기에 훗날 진로를 선택했을 때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지만 분야에 따라선 입시교육이나 다른 부분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과의 경쟁에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그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선 큰 공감을 하고 있었다.

“예민한 시절에 인간관계로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사회

적인 열등감까지 쌓이면 진짜 세상에 나오기 두렵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대학과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대학이 방어막이 되어준 좋은 케이스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세 개의 전공(사회학/정치학/평생교육학)을 공부했던 재은씨는 졸업 후, 청년당이란 정당에서 잠깐 활동을 했다. 청년당은 20대와 30대 등 청년층의 정치조직화를 목표로 2012년 3월 19일 창당된 신생 정당이었다. 정치학 전공으로 외부활동을 하던 중 안철수씨의 청춘콘서트에 참여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청춘콘서트에서 2~3000명 정도의 많은 청년들이 두,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질문의 지점이었다.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 그러면서 청년당 활동을 하고 어떻게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안철수 씨의 출마부터 대선 사퇴라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한 사람으로 이런 열망을 모은다는 건 불가능하단 걸 깨달았죠.”

청년당은 2012년 4월 11일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갔지만 저조한 투표율로 결국 정당을 해산하게 됐다. 1년 동안 자원 활동식으로 정당 일을

지원했던 그녀는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2012년 말 그녀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청소년 교육 일에 뜻을 품고 하자 센터에 지원을하지만 떨어졌다. 그러나 5일 후, 하자센터 센터장이었던 전효관 센터장이 2013년 1월에 신설되는 허브센터 청소년 센터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해왔다.

사람을 만나는 일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

그녀가 일하고 있는 첫 직장의 공식명칭은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이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활동들을 정책과 연결시키는 일과 청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청년 참이란 일로 매월 20일까지 커뮤니티 모집신청을 받아 지원서를 검토하고 인터뷰 후 선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커뮤니티 선정 후에는 일 년에 최대 100만원의 비용 지원과 함께 매달 반상회를 연다고 했다. 2~300명이 청년 카페에 모여 각자의 활동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식이었다.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경쟁을 통한 선발보단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 있어서 커뮤니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설명해줄 수 있는 팀, 우리끼리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장되

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팀을 선정해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이 제일 필요했다. 첫 직장의 일에 몰입해 자신의 삶과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체력에 문제가 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을 하며 청년업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스스로 일에 몰입되는 지점과 어떤 사업을 맡아 진행하며 느껴지는 뿌듯함이 맞물리면서 그녀에게 그 일의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데 받침이 된 것이다.

“꼭 여기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기 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그 안에서 청년 관련 일을 어떻게 할지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재은씨 역시 진로를 고민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구체적인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까하는 대안학교 시절부터 늘 해왔던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끈질긴 질문 끝에 그녀가 내린 답은 사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단 것이었다. 대안학교의 공동체 생활 덕에 기본 마인드가 잡힌 거라고 말하는 그녀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서로 도와주며 사회를 바꾸는 사회운동가가 되길 바라고 있었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잘 사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녀는 예전의 자신과 비

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어린 친구들에게 조언을 남겼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대안학교에 있으면 공동체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잡혀요. 또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살아야 한단 것 자체를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구요. 또 다른 방향을 보게 되면 훨씬 볼 것이 많아지죠. 내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 보는 것도 유용한 일이에요. 무엇이든 실컷 경험하고 해보세요.”

07

대안학교 역사 선생님이 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졸업생

많은 생각, 많은 경험,
그리고 자신감



아힘나평화학교 역사 교사

김강산

- **누구의 이야기?**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역사를 공부해 대안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는 남자

- **하는 일은?** 아힘나평화학교 역사 선생님,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사무 간사

- **꿈을 이룬 과정** 공부를 잘하던 중학생→아버지의 권유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입학
→4~5개의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실 틈 없이 즐겁게 생활→대학 입학(국사학과)→민족문화연구소에서 활동 시작(1923 한일재일시민연대)→대학원 진학→아힘나평화학교 역사 교사

- **장래 포부**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인식 바로잡기

- **그의 한마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김강산

아힘나평화학교 역사 교사



‘아힘나평화학교’는 중고등 과정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비인가 대안학교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김강산 씨는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일 외에도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에서 사무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대안학교 졸업생 출신인 그가 대안학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 졸업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대안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게 된 것인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역사 선생님, 시민단체 사무 간사

“어릴 때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다닐 때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로 돌아가 제가 배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선택할 때 교직이 개설되어 있는 과를 찾다가 사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역사에 흥미가 깊어졌어요.”

2007년, 김강산 씨가 대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다. 교육자인 아버지가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 관동지방으로 캠프를 떠나게 됐는데, 그때 김강산 씨도 함께 갔다가 그곳에서 역사 강의를 해주러 오신 할머니를 만났는데 90세 가까이 되신 일본 분이였다. 그분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목격하신 분으로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버지도 그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다. 그곳에서 사무 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이 단체를 만들면서 민족문제연구소 실장님을 만났고 그 인연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 들어가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드는 등 활동을 함께 해왔다.

1923년 일본 관동지역에서 일어난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은 무려 6천 명.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는커녕 추모 활동조차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든 단체가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다.

현재는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고 그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그는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공부를 더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 입학울 선택한 김강산 씨는 현재도 일본 관동지방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는 답사와 캠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공부 잘하던 중학생, 대안학교에 가다

김강산 씨는 공부를 잘하는 중학생이었다. 광주 시내에 광주고등학교가 생기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모두 광주 시내로 나가기 바쁜 시기에 부모님이 갑자기 그에게 대안학교를 권하셨다. 친구들은 다 광주고등학교에 입학울 하는데 농업고등학교에 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처음에는 경운기와 트랙터가 지나다니는 시골길에서 학생처럼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서로 ‘밝았습니다’, ‘밝았습니다’라며 이상한 말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황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학교생활이 재미있었고, 제가 생각한 고등학교는 아니었지만 제가 바라는 고등학교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과 어울리며 살아본 것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고, 역사를 공부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동아리

활동도 재미있었어요.”

학교 전체 인원이 70명이었는데 동아리 소모임이 30개 가까이 되었다. 그도 4~5개의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쉴 틈 없이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시험 날만 되면 배가 아플 정도로 예민한 성격으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그였는데, 정작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늘 대학교는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농어촌 특별전형, 대안학교 특별전형, 자기 추천 등, 저는 어디로든 뚫고 들어갈 자신감이 있었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좋은 삶을 사는 어른들

“저에게 ‘좋은 대학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고민한 적은 없죠. 부모님이 살아오신 과정을 봤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학교를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김강산 씨의 부모님은 신학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민중신학

을 바탕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사회문제, 역사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였다. 대학교 시절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답사를 왔다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그의 부모님은 학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보내고 몇 년 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모델로 아힘나평화학교를 세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부터 어머니와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받아주셨고 저 역시 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죠.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가라고 했던 청천벽력 같은 권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안학교의 추억

김강산 씨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체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마찰들도 있었고 저녁모임 시간에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흥분해서 주먹다짐이 오가기도 했다. 선후배 관계에서 균기를 잡는다고 해서 한때 ‘때리는 문화’가 전해 내려오기도 했다.

“저희가 닭을 키우는데, 새벽에 닭을 잡아서 닭볶음탕을 해먹고 경운기 타고 피시방에 간 전설적인 선배들이 있었죠. 대안학교에도 부조리한 규칙들이 많았어요.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여름에도 반바지를 못 입

게 하고 보수적인 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돌이켜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동아리 활동으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수준 높게 진행되었던 편이었지만 ‘더 잘했다라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가 역사동아리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주제가 근현대사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실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이라크 파병문제, 김선일 씨 피랍사건, FTA 쌀 개방문제 등, 또래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입시 준비 때문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할 수 있었다.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처음 읽었을 때는 개화기 때 신문을 처음 접한 사람처럼 ‘정말 이런 생각도 해? 이런 사람도 있어?’ 하면서 놀라기도 했어요. 국어선생님이 글쓰기도 많이 시키셔서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글 쓰는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입시 준비를 할 때도 두려움이 덜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생각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기타 치는 것을 좋아하셔서

기성곡에 가사를 바꿔 노래를 부르시곤 했어요. 뒤 운동장에서 민중에 관한 노래나 녹두장군 전봉준 노래를 기타 치며 부르시던 모습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비인가 학교라서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과 중심으로만 가르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김강산 씨는 현재 박사 과정 공부 중이라 역사 수업 이외에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여유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학교가 있는 마을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했다. 마을로 내려가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역사를 기록해보도록 하거나 함께 현장을 답사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기획하면 마을주민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이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고민들이 대부분 막연한 것들이죠.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면 그것을 향해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고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라고 하는 어른들도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당장은 할 수 없더라도 끊임없이,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과 경험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요. 고민을 즐기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사건 ■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수습 과정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유언비어가 조장되어 조선인 대량 학살로 이어진 사건.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 간토(關東)지방에 매그니튜드 7.9, 최대 진도 7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은 대규모의 화재와 해일, 토네이도로 이어지며 도쿄의 60%, 요코하마의 80%를 파괴했다.

일본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사망자 9만9천331명, 행방불명 4만3천476명, 가옥 전파(全破) 12만8천266동, 반파(半破) 12만6천233동, 소실 44만7천128동, 유실 868동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지진 다음날 발족한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 내각은 흥흥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각은 ‘조선인이 방화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었다!’, ‘조선인의 배후에는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키고 이것을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때문에 유언비어가 기정사실화됨으로써 일본인들은 대대적인 조선인 사냥을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3,689개의 일본인 자경단(自警團)이 조선인들을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한 조선인의 숫자는 가장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2천500명이 넘고, 문헌에 따라서는 6천명에서 1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이 혼란을 조선인들에게 우호적인 좌익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기회로 삼아, 노동운동가 히라사자와 게이시치(平澤計七), 사회주의지도자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부부 등 일본의 진보적 인사 수십 명을 검거해 살해했다.

한편 일본은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9월 1일을 ‘방재(防災)의 날’로 정해서 재난재해에 대한 대피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토대지진(관동대지진) 학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08

이주 여성들의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졸업생

이주 여성들에게 친정집이 되어주기 위해



이주여성사업팀장

이은선

- **누구의 이야기?** 영화감독의 꿈을 꾸면서 이주 여성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여자

- **하는 일은?**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주민복지사업부 이주여성사업팀장

- **꿈을 이룬 과정**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졸업→대학입학(신문방송학과)→우여곡절 끝에 대학 졸업→놀이문화연구소에서 근무→경기문화재단에서 근무→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입사

- **장래 포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

- **그의 한마디** 젊은이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미래의 꿈이 아니라 오늘의 열정과 패기다



결혼을 계기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 외국 여성들이 점점 늘고 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외국 땅에서 문화 차이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주 여성들에게는 그들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지원군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외국 이주민 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어린 외국인 엄마들의 친정집

이은선 팀장이 근무하는 외국인복지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자체가 만든 외국인 복지기관이다.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실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처럼 1~5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제한 없이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교실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동아리가 있어서 같은 꿈을 가진 여성들끼리 모여 활동도 하고 한국어 토론도 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활력과 도움을 얻는다.

물론 복지관 무료서비스인 진료, 법률 상담, 이혼이나 가정폭력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이주여성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은선 팀장이다.

“동남아권에서 온 이주 여성들은 현지에서 남편과 만나 연애결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 필수예요.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은 남편이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이도 돌봐야 하는 형편이라 한국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이주 여성의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그녀는 이주여성들이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습관이나 문화의 차이도 커서 가족들의 배려 없이는 원만하게 살아가기 어렵다고 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지고 부모와 떨어져서 타지에서 살아야 하는 어린 외국인 엄마들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일쑤다. 이주여성들의 친정집도

되어주고 친정 언니도, 친정 동생도 되어주며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녀가 하는 일이다.

“이주 여성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무식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경험할 기회조차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을 못하고 지식이 부족할 뿐이지 바보가 아닙니다. 바리스타가 무엇인지 몰라도 파인애플을 자르는 방법은 5~6가지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바보 취급을 받고 아이가 잘못 되어도,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심지어 자신이 아파도 다 그녀들의 잘못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배풀기 위해서는 그만큼 받아야 하는 사랑

이은선 팀장은 자신을 ‘직딩’이라고 표현한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대학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이주 여성들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 그녀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녀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다. 일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했고 그래서 그녀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바리스타를 배운 것도 이주 여성들이 갑자기 애가 아파 못 나올 때를 대비해서 제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배우게 됐죠.”

그녀는 그렇게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하나씩 배워나갔다. 청소년기에 그녀는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앞에서 리드하기보다는 뒤에서 따뜻하게 감싸주고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주는 그런 다정한 사람이었다.

“사람의 마음에는 100퍼센트의 사랑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40퍼센트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40퍼센트를 받아야 한대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저 역시 어딘가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아이와 남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사랑을 받아야 해요.”

고충과 보람

이은선 팀장이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그녀가 가정폭력이나 우울증에 관한 사례를 담당할 때는 몸살이 나 사흘 동안 앓아눕기도 했고, 사례자의 고통이 너무나 공감되어 가슴이 아픈 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견디며 꾸준히 가다 보면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힘겨운 그 시간을 견디는 동안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지해주고 인정

해주는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계 사회인 베트남에서는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사망하면 대부분
엄마 쪽에서 아이를 키운다. 한국으로 재혼하여 오는 이주 여성의 경우,
시간이 흐른 뒤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런
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베트남에서 살아보야 자신처럼 고생할 거라는 생각에 한국에 데리
고 오긴 하는데 이주여성들이 생각하는 ‘더 나은 삶’이란 아이를 공장에
보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주어야 해요.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꿈꾸는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죠.
그런데 엄마는 취업을 시킬 테니 학교 보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엄마는 자신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녀는 이주여성(엄마)와 아이를 설득해야 했다. 한국에 들어와 처음
에는 집밖으로 나오려고도 하지 않았던 베트남 아이가 3년이 지난 지금
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 좋고 싫다는 의사표현도 하게 되었고 8
월에는 다문화학교에 입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이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직장을 얻어 사회생활을 하게 된
이주 여성이 집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볼 때도 보람을 느끼죠. 그것이 이 일을 해나가는 원동력이예요.”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의 사춘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은선 팀장의 꿈은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영화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영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를 따라 가서 보았던 생애 첫 영화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었어요. 어두운 시골 지하 영화관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보았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즐거워서 아버지가 장사하러 나갈 때도 따라다니곤 했던 그녀는 언니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힘들게 공부하는 게 싫으니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업계를 다니면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한다는 부모님 업포에 그녀는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망설이고 있는 그녀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를 제안했다.

“농민운동이나 지역운동, 청년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가 우연히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특강을 듣게 되셨나 봐요. 대전까지 가서 들은 특강에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는데 마침 그 학교가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학교생활을 하며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었다. 생각할 시간이 많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학교를 다니

다 보니 자신의 단점도 발견하게 되고 심각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도 했다. 집안이 어려워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족함 하나 없이 자랐지만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안하는 자신에 대한 책망이 생겼다. 남들과 다르게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평범한 사람이란 걸 알면서 충격도 받았다.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그녀는 자다가 숨이 멈추기도 했고 수업 시간에 기절하는 일도 생겼다.

그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린 그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하지만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딸을 맞아주며 무슨 이야기든 잘 들어주시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녀는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이 많고, 겸손했던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녀는 자신이 싸움꾼이 되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해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라고 말해버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다. ‘한국어 교실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너무 마음 아프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은선 팀장을 키운 토양은 어머니였다.

충분히 100점을 넘어선 열정

“제가 이 일을 지금까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양분은 풀무농업 고등기술학교에서 받았어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죠.”

이은선 팀장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시절, 학교에 다니며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다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녀는 ‘모모 프렌즈’라는 영화 동아리도 만들었고,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문화 시간에 직접 강사를 초대하기도 하기도 했다.

“「씨네21」 편집장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이 정말로 와주셨어요. 저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만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봤고, 그때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그 노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면, 결과에 대해 그 누구도 점수를 매길 수 없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과정과 노력만으로 충분히 100점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지를 해주셨던 선생님 덕분에 그녀 역시 이주 여성에게 ‘안 돼도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 안 되는 건 아니에요’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6년 만에 대학 졸업

대학 입학할 준비하면서 영화학과와 신문방송학과를 두고 망설였던 이은선 팀장은 어머니의 조언으로 신문방송학과에 면접을 보러 서울로 갔다. 면접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올라온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녀는 당장 영화관으로 갔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도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수업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잠이 덜

게 줄거나 수업에 빠지기 일쑤였다. 결국 자기소개조차 준비하지 못한 채 면접에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첫 질문에서 이름만 말하고 말문이 막혀 버렸어요. 속으로 ‘아, 망했다. 불합격할 게 뻔해’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질문 부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어서 20분 동안 열심히 질문에 답했고, 결국 대학에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대학생활은 생각처럼 순탄하지는 않았다. IMF가 터지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그녀가 입학할 즈음에는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던 것이다. 그녀는 이는 언니와 원룸에서 함께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할 수밖에 없었다. 힘겨운 생활에 지친 그녀는 휴학을 하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언니가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할 때까지 공부부를 중단할 생각으로 향한 집으로 향했다.

“집안일을 도우면서 공부에 대한 반성과 갈증이 생겨 강의를 찾아다니며 듣던 중에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 제 복학을 도와줬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6년 동안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3년 6개월 만에 학점을 이수하고 무사히 졸업했어요.”

현장에서 뛰며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은선 팀장은 휴학을 했을 때 영화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교 1학년 때부터 자원봉사 다니던 ‘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돈이 없어 휴학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녀는 2주에 한 번 있는 자원봉사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언젠가를 이렇게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감독이 될 거야”라는 희망이 비관적이고 어둡던 시절을 건디게 해주었죠. ‘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는 제 첫 직장이기도 해요. 캠프와 같이 자연 속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이 제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뛰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면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경험을 해보리라 마음먹었죠.”

그 즈음 그녀에게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의 코디네이터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가 들어왔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었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하는 일이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일하다가 이주 여성들도 바우처사업의 혜택을 받고 그녀가 일하던 예술재능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남양주에 답사 차 왔던 것이 인연이 되어 그녀는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 입사하게 되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때로는 통로 역할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저에게는 잘 맞고 재미있어요.”

이주 여성의 복지를 위해 일한 지 3년 차가 된 그녀가 꿈꾸는 미래에는 아직도 영화가 있다. 힘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영화를, 죽기 전에 딱 한 편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

고 살고 있다는 그녀의 인생 최종 목표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배우는 사람, 재미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했다.

달리는 것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 반드시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출근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오늘 날씨가 너무 맑다, 강원도 가는 버스를 타자’를 정말 저질러 보는 거예요. 일탈을 하지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자는 거죠. 더, 더, 더가 아니라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멈추고, 공부를 멈추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일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도 있고 몸도 지쳐 피곤하지만 복날이니 좋은 아내, 엄마가 되기 위해 가족을 위해서 닭고기를 사러 시장에 가요. 그런데 하필 대추가 없어서 다른 곳까지 가서 겨우 대추를 사들고 집에 돌아와 더운 날씨에 삼계탕을 끓였는데 남편이 대뜸 ‘왜 삼계탕에 인삼이 없냐?’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얼마나 힘들게 끓인 건 줄 아느냐’고 따지게 되고, 남편은 ‘누가 고생하래?’ 하고 대꾸하는 식이죠. 그러니 힘든 날은 그냥 마트에 가서 삼계탕 팩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오늘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만들지 못하고 샀다고, 맛이 없어도 이해해달

라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괜찮다고 말할 거예요.”

이은선 팀장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며 조언을 남겼다.

“꼭, 더 나은 미래란 없어요. 오늘의 최선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를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가져할 것은 미래의 꿈이 아니라 열정과 패기라는 거예요.”

09

후손에게 이어질 전통 건축물 짓기를 꿈꾸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졸업생

비전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한옥목수
정충만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한옥 목수 일을 하는 남자

- **하는 일은?** 사찰, 한옥 등을 전통 방식 그대로 짓고 보수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대안학교)→전남대 농대 자퇴→한옥 목수 아르바이트→군 제대 후 정식 한옥 목수가 됨

- **장래 포부** 건축 기술 연구와 전통 한옥 협동조합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전통 건축을 물려주는 일

- **그의 한마디** 비전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더 알고 싶다면** <http://www.hanokschool.biz/2013/index.asp> / <http://www.nuch.ac.kr/>

정충만

한옥목수



정충만 씨는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대안학교 ‘풀무농업학교’의 졸업생이다. 어린 시절부터 농부가 되고 싶었던 그는 대학교를 자퇴한 뒤, 아르바이트로 경험했던 한옥 목수 일에서 적성을 찾게 됐다. 결국 그는 군 제대 후에 정식으로 한옥 목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옥 목수이자 한옥기능사로서 그의 일은 사찰과 한옥 같은 전통 건물을 전통 방식 그대로 수리하거나 짓는 일이다. 목수 일을 한지 12년차에 접어든 그가 걸어온 지난 이야기는 흥미진진했다.

아버지의 권유로 대안학교를 갔어요

어린 시절 정충만 씨의 꿈은 목수가 아니라 농부였다. 교과서에 실린 농부가 경운기를 몰고 가는 그림을 보며 그는 막연히 농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이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는 모범생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중학생이 되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곤 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과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단 생각을 했고, 대안학교 중 기독교 계열의 학교였던 풀무농업 학교 시험을 쳐볼 것을 권유했다.

아버지의 목회일로 고등학교 입학 전 이사를 스무 번 이상 경험했던 그에게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친구들과 재밌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해방감은 모범생으로 살아야 했던 그의 답답함을 폭발시켰다.

대안학교에서 무기정학을 세 번 맞았죠

청소년기의 방황은 부모와의 불화나 친구와의 관계 등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의 방황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유를 느끼며 시작되었다.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과 살면서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모범생이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 고등학교에서 억눌렀던 게 풀리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단 생각을 했죠. 여자 친구도 사귀고 술, 담배, 기출도 했어요.”

학교에서는 음주를 하고 새벽에 기숙사로 돌아오던 그와 친구들에게 결국 무기정학을 내렸다. 모두가 함께 하는 기숙사에서의 공동생활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경고를 주고 그래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으로 한번 보내는 시스템이었다. 정학을 맞아 집에 온 아들에게 그의 어머니는 화를 내거나 매를 들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며 아들의 일탈을 눈감아 주었던 것이다. 무작정 혼내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이해한 어머니의 방식으로 그는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련 없이 하고 끝낼 수 있었다. 어머니와 더불어 그의 무기정학과는 상관없이 그를 아끼던 학교 선생님들 역시 그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대학을 갔지만 게임 때문에 짤렸어요

어릴 적부터 농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지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겠단 구체적인 생각이 그에게는 없었다. 풀무농업학교의 고등과정 졸업 후, 그는 같은 학교에서 농업 교육을 하는 전공과정 진학을 선택하려고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경험한 것을 토대로 넓은 세상을 바라보려는 가족들의 추천으로 전남대학교 농대에 진학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

학 생활에 대해 가지는 환상이나 즐거움을 그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대학 친구들과는 관심요소가 달라 대화가 잘 안됐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촌동생이 하던 리니지 게임을 같이 하게 된 그는 게임을 72시간동안 안 자지 않고 하는 등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어 학사경고를 3번 받고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하나에 빠지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던 충만 씨는 게임 폐인이 되었고 게임을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자제하지 못했다. 그를 보다 못한 매형은 자신이 하고 있던 한옥 목수 일을 소개시켜 주었다. 한옥목수 일을 하며 그는 보람이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목수 일을 처음 가면 시키는 게 서까래(지붕판을 만들고 추녀를 구성하는 기늘고 긴 각재)를 깎는 일인데 8kg 정도 되는 기계를 들고 계속 손을 움직여야 해요. 살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땀이 줄줄 흘러 힘든데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지는 희열을 느낀 거예요.”

보람을 느낀 한옥목수 일을 계속하긴 했지만 그가 정식으로 한옥목수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군 제대 후였다.

한옥목수에게 필요한 건 끈기와 체력이예요

한옥은 기둥과 바닥은 나무로, 벽은 흙으로, 창은 한지를 발라서 만드는 친환경 가옥이다.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며 국산 육송을 별목해 운반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짓는 비용이 양옥의 1.5배나 된

다. 그러나 잘 지은 한옥은 내구성이 좋아 천 년을 갈 정도로 견고하고 튼튼하다. 그는 한옥이 목재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목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궁궐이나 사찰 등과 관련된 대규모 문화재복원사업이 많은 요즘, 살림집을 짓는 대목수들의 입장에서 얼핏 생각하면 민가와 문화재 관련 공사를 하는 것은 사회적 명예나 목수로서의 지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한옥을 짓는 목수라면 살림집이건 궁궐을 짓건 상관없이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자신했다. 목수로서의 마음가짐과 더불어 그는 한 가지만 잘 해선 결코 한옥목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연장들로 다양한 기술을 연마했고 조선 시대 때부터 내려온 전통방법으로만 한옥을 짓고 있었다.

“전역 후 한옥목수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부터 연장을 사기 시작했어요. 대패만 해도 3~40개, 끌도 50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 방법이 다 다르고, 더 나은 품질을 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손대패라는 연장은 기계 대패와는 달리 날만 날카롭다고 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패 날을 잡고 숯돌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도도 중요하고 세심하게 다뤄야 하죠. 손대패를 제대로 사용하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한옥 목수는 끈기와 체력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끈기와 체력으로 12년차 목수에 접어든 그는 발전 없이 퇴보하는 우리 전통한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 삼국 시대에 일본은 자신들보다 건축 기술이 앞선 백제의 장인을 초청해 법륜사 금당이라는 큰 건물을 지었다. 14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 최초의 목조 건축물을 만든 백제 장인은 일본에 남아 금강조라는 목수협동조합을 만들어 일본에 여러 건물을 남겼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인 금강조가 지은 건물들은 일본의 잦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다. 기술을 발전시켜 오래된 건물도 보존시키는 능력을 보유한 일본과 전통건축이 퇴보한 한국의 레벨 차이는 그로 하여금 전통 한옥 건축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다. 손연장을 쓰며 전통방식으로 한옥을 짓는 사람들과 함께 만든 고집쟁이란 협동조합은 그 다짐의 초석이다.

“이제부터라도 건축기술을 연구하고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 환경과 건축물에서 남겨놓은 그들의 자취는 결국 아이들에게 전통의 미와 멋을 알게 하는 교육 효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최근 한옥이 다시 주목 받으며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가 건축에 의존할 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한옥목수들은 주로 사찰과 절을 보수하거나 짓는 일을 한다. 전통 민가 건축은 목수 개인이 담당하지만, 절이나 사찰의 보수 및 건축을 주관하는 곳은 개인보다는 문화재청인 경우가 많다. 사찰 공사를 입찰 받은 전통 건축 문화재 회사에서 회사 소속 목수들에게 일을 의뢰 및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매뉴얼이다. 그러나 1년에 한 두 채 정

도의 일만을 해야 하는 시스템은 그를 비롯한 많은 목수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른 목수에 비해 박봉에 끊임없이 객지 생활을 해야 하는 한옥목수 일을 하고 싶다면 연락하는 이들에게 그는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낸다고 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잘 버틸 수 있고, 그의 얘기를 듣고 맘을 접을 사람은 어차피 중도에 그만둘 것이라 생각해서였다.

“자기 전문성을 가지려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본 책에서 기술자란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일을 오래하는 사람이란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비전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전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대학 졸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대학 건축과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건축과를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단종면허를 낼 수 있고, 이론 공부는 전통 건축 관련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한옥 관련일이 하고 싶다고 꼭 대학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고등학생이 한옥목수가 꿈이라면 졸업하고 곧바로 목수 일을 시작해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엔, 부여의 한국전통문화학교나 명지대에도 전통건축과가 있죠. 일반 건축과를 가더라도 보수기술자 자격증을 따면 문화재 보수 회사나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죠.”

나 때문에 사회가 굴러간다고 생각해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선 위대한 평민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당시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살면서 생각해보니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사회에서 내가 강한 권력을 가졌거나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사회가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톱니바퀴의 한 이빨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옥목수로 일하고 있지만 그건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이고 후손들한테도 필요한 일이란 마음가짐을 품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든 것은 대안학교의 영향이 컸다. 그곳에서 지내며 습득한 경험과 긍정적인 마음이 전통한옥과 건축에 대한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준 것이다.

오늘날의 중, 고등학생들은 입시라는 틀에 갇혀 대학을 목표로 사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꿈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한 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그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지금 당장은 꿈이 없어도 모든 일들은 다 연결돼 있기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자기의 커리어로 남는 거죠.”

10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빛고등학교 졸업생

사람에겐 다 때가 있기에
쫓기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학교 교사

박시내

- **누구의 이야기?**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특수학교에서 장애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자
- **하는 일은?** 특수학교에서 장애아를 가르치고 있다
- **꿈을 이룬 과정** 전남 담양 한빛고등학교(대안학교)→특수교육과 진학→기간제 교사
→특수교사 임용 합격→'광주선명학교'(특수학교) 부임
- **장래 포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것
- **그의 한마디** 사람에게겐 다 때가 있기에 쫓기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 **더 알고 싶다면** <http://cafe.daum.net/imyongmidal/>



박시내 씨는 전남 담양의 대안학교, ‘한빛고등학교’ 출신의 특수 교사이다. 고아원을 운영하신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장애아와 어울려 지낼 기회가 많았던 그녀는 여러 가지 꿈들을 거쳐 현재는 특수학교 중등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반 아이들이 예뻐 어쩔 줄 모르겠다는 1년차 신입 교사 시내씨가 교탁에 서기까지 걸어온 길은 거침없었다.

대안학교 진학은 어릴 적부터 인생 계획에 그려져 있었죠

교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시내 씨는 어릴 적부터 대안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전교조 교사들 사이에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의 모임이 생겼던 시기, 전교조 출신이신 아버지를 통해 그녀는 대안학교가 설립되기 전부터 한빛고등학교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말이다.

“초등학생 때 터무니없는 인생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디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는 어디, 대학교는 어디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가진다는... 그 계획안에 한빛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막연히 생각했던 계획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중학교 시절, 그녀를 곤란에 빠트린 어떤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또래보다 유달리 조숙했던 그녀의 생각이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괴리감을 만든 것이다.

“어릴 때부터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조숙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귄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고민하는 문제가 달랐죠.”

오해들이 쌓여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했던 경험은 성장기의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계획했던 한빛고등학교 진학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대안학교는 삶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전남 담양에 위치한 ‘한빛고등학교’ 학기 초에 그녀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중학교를 졸업한 십대 중반의 청소년들이 모여 새로운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는 악습이 필요했다. 무리의 결속을 위해서 남을 배척하며 교우관계를 확인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 걸(따돌림) 너무 싫어하면서도 어렵게 얻은 친구들이란 생각에 거기에 참여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관계들은 다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저는 거기서 나와 다른 친구들을 만났죠. 처음 만났던 친구들은 성향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을 거치는 동안 그녀는 그런 일들조차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했던 일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대안학교에서 그녀 역시 연극, 찬양, 댄스, 노래, 영화 동아리 등에서 활발히 참여를 했다.

“저희는 학교 교육과정이 일반 고등학교와 달랐어요.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섬 기행도 가고, 지리산 종주도 했죠. 그 과정들이 미래에 가져야 할 직업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가짐과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지는 결정하는 법을 알게 하는 거죠.”

그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3박 4일로 떠난 지리산 종주였다. “지리산 성삼재에서 출발해 중산리로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20kg짜리 배낭을 메고 씻지도 못하고 3박4일을 올라갔죠. 뱀사골, 벽소령, 천왕봉도 올라가고, 네 개의 산장에서 자면서. 제가 산

을 무척 싫어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때 성취감을 느꼈죠. ‘내가 3박4일 동안 싫어하는 산도 탔는데 앞으로 뭘 못하겠느냐’라는 동기화도 잘 됐구요. 학교의 여러 활동들이 재미도 있었지만 특히 정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삶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딱히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척 많기 때문으로 읽힐 때도 있다. 그녀 역시 고등학교 때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없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단 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대안학교에는 특성상 예체능 계열의 아이들이 많았었다.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재주도 있던 그녀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극을 받아 한 때 예술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술은 취미에서 그쳐야 한다는 어머니의 확고한 의견이 그녀의 생각을 저지했다. 부모님처럼 교사가 된다는 생각 역시 ‘한빛고등학교’의 헌신적인 선생님들의 희생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만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은 가야했었죠.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식이 특별한 꿈이 없다 해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원치 않으셨던 거죠.”

교사가 된다는 생각이 없었던 그녀의 대학 지망학과를 결정해 준 것은 특수학교인 ‘순천 선혜학교’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 체육교사에서 특수교사로 전향을 한 아버지가 재직해 있던 ‘순천 선혜학교’에서 그녀는 재미를 느꼈다. 순창에서 컴패션 지원을 받아 고아원을 운영한 할아버지를 통해 어릴 적부터 고아와 장애아들과 뛰어놀며 지냈던 경험으로 장애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없었던 그녀에게 아버지는 대학 전공을 특수교육으로 선택할 것을 권유했다.

“전공을 선택할 때, 부모님께서 추천해주셨어요. 집안 자체가 복지사업을 했던 터라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좋아하셨구요. 미래의 급여나 안정적인 직업에 대해 얘기도 나눴죠. 저도 너무 고생하면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특수교육을 전공으로 선택하고서도 선생님이 되겠다 마음먹은 것은 시간이 좀 흐른 뒤의 일이었다.

진로를 꿈과 동일시하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미래에는 전공을 살려 직업을 가진다는 메뉴얼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부모님 역시 그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학교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꿈과 직업에 대해 방황을 했다. 특수교육을 전공했지만 특수교육을 진로의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난 이걸 해야겠다, 혹은 내 직업은 이거다 라고 딱히 정한 게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진로를 꿈과 동일시하고 싶진 않아요. 내 인생에서 직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돌아다녀 봤죠. 그 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임용고시에 더 빨리 합격했겠지만, 방황했던 그 시간들이 아깝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스물여덟인데 스물여덟에 특수교사란 직업을 가질 줄 알았으면 공부에 연연하지 않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해보면서 즐겁게 살아볼 걸 하는 후회가 돼요.”

방황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대학에서의 공부를 대충 하지는 않았다. 주어진 일들은 늘 잘 해야겠다는 생각은 그녀가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충실하게 다니는 데 일조했다. “부모님이 따로 공부를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 보다는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전 하지 않았었어요. 아르바이트도 안하고 공부도 안했던 거죠. 학기 중에는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4학년 때 사범대 학생이면 누구나 그랬듯이 임용고시 준비를 했었죠. 막상 졸업하고 나니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저에게 교사가 되겠다 간절함도 없었구요.”

대학을 스물 세 살 때 졸업한 그녀는 임용고시를 총 세 번 치렀다. 초반 두 번의 시험에선 1차 합격도 하지 못했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녀는 공부에 몰두하기보단 취업을 위해 제빵기술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으로 제빵학원도 다녀보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다. 그녀에게 있어 생전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였다. 대학 졸업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지원을 받아 그녀는 오전에는 제

빵학원,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약 4~5개월을 지냈다.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던 그녀가 그때서야 사회 경험을 처음 쌓게 된 것이었다.

기간제 교사를 했던 경험이 특수교사를 하고

싶단 맘에 불을 지폈어요

졸업 후, 서울에 올라와 다양한 경험을 한 그녀는 다음해 임용 고시를 치렀다. 그러나 아직도 교사를 해야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터라 그 해 시험도 떨어지고 지방에 내려와 기간제 특수교사를 하게 되었다. 정규 채용교사가 아니라 고용불안이 항시 존재하는 기간제 교사로서의 경험은 그녀가 꼭 임용시험에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는데 일조했다.

“우스갯소리로 특수교사가 교실의 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많고 거짓말을 해도 바로 선생님한테 들키기 때문이죠. 기간제 교사로 처음 애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고 수업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1년 더 기간제 교사로서 아이들과 만나려 했던 그녀의 계획은 ‘짧은 경력’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다. 지원한 학교의 이사진이 교사 경력이 1년밖에 안 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아쉬움도 남았지만 결국 그녀는 이전의 임용고시와는 달리 반드시 특수교사를 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4년 임용시험을 준비했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그녀는 합격하는 공부 따로 있던 것을 깨달았

다. 합격을 위해선 합격하는 공부, 즉 책에 적힌 내용을 문제로 풀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하단 사실이었다. 결국 그녀는 2014년 세 번째 임용시험에서 광주특수교사로 합격해 공립 정신 발달 지체아 특수학교인 ‘광주 선명학교’에 부임했다.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부임 초반 그녀는 학과에서 배웠던 지식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현장(교실)에서의 ‘아이들의 특성’과 이론으로 공부한 ‘아이들의 특성’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 생각했던 지식은 교육을 위한 매뉴얼에 도움이 되었다. 똑같은 정신지체라 해도 다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각 아이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IEP)을 개인별로 짜야 했다. 학생별로 교육계획을 짤 때, 개인의 성향 및 능력, 장애정도를 기반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이론적 매뉴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교실에 아홉 명이 있으면 아홉 개가 필요하고 과목별로도 교육이 달라져야 해요. 과목이 네 개라 친다면 적어도 서른여섯개 이상의 교육계획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일년 분량으로 짜야 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죠. 그때 학과에서 습득한 이론이 도움이 되었어요.”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많아 정서반으로 불린다는 그녀의 학생들은 그녀와 함께 하며 점차 웃음이 많아졌다. 대답을 잘 하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매일 윈맨쇼를 벌이는 그녀에게 아이들은 마냥 예쁜 존재가 되었다. 초반 그녀는 자신의 입장에서 아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의 생각을 바꾼 것은 동료 교사의 한 마디였다. 학교에서 손톱을 계속 뜯는 아이를 못하게 말리던 그녀를 보던 동료 교사가 ‘손톱 좀 뜯을 수 있지. 죽는 일도 아닌데~’라며 지나간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잣대를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내가 가진 일을 처리하는 과정과 아이들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아이들에 대해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일반 아이들에겐 당연한 일도 우리 아이들에겐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아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그녀는 체력과 성실함 역시 특수교사의 덕목으로 뽑았다. 장애아동들은 표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생님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수업을 하는지 다 관찰을 하고 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말귀는 알아듣는 것이다. 본능에 의해 움직이기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남보다 빨리 본능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기에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장난스레 아이들을 중2병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고객님이라고 농담하는 그녀지만 교사의 소양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직업을 가졌고, 직업을 가짐으로써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저는 제가 받는 월급에 부끄럽지 않아요. 또 아이들이 교실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기에 저는 교사가 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돈을 먼저 생각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온다면 스스로 그만두자라고 다짐했어요. 교사는 단순한 ‘직업’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요. 소명이 필요하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의사와는 다르게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

사람에겐 다 때가 있기에 쫓기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녀는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인드맵을 그려 도식화를 시켜보곤 했다. 자신의 이름과 기분을 적고 다른 가지로는 앞으로의 방향, 지금 할 일 등을 그려보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쪽 쓰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꿈이 없을 땐, 무얼 해야 할 지 무척 막연하죠. 그럴 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봐요. 그림 그리는 게 좋으면 그림을 그려도 되죠. 세분화시키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좁혀볼 수도 있고 넓

힐 수도 있죠. 자신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를 아는데 도움이 되니까 평소에 자주 적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녀는 얼마 전부터 또 다른 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자신이 정해놓은 계획을 통해 삶을 상기하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꿈을 강요하는 나라에서 그녀의 생각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에게겐 다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위한 준비, 즉 경험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정말 꿈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아껴두지 말고 직접 해보야 인생을 알 수 있단 말이었다. 금전적 문제에 붙들려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그 시선에 내가 쫓기게 돼요. 하지만 쫓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기가 가진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고 그걸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쫓기지 말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겐 다 때가 있으니깐. 그 때를 기다리며 즐겁고 많은 경험을 노력과 함께 만들어가야 해요.”

앞으로의 인생 목표를 ‘베풀면서, 행복하고, 재미있게’라고 말하는 그녀는 앞으로도 여러 경험들을 통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11

간호조무사로 시작하여 물리치료사가 된 경주화랑고등학교 졸업생

환자가 아닌 사람을 치료하다



물리치료사

김윤하

- **누구의 이야기?**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인 동시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물리치료사가 된 대안학교 졸업생

- **하는 일은?**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중학생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강해지기 위해 선무도를 배우기 시작→선무도 수업이 있는 대안학교 화랑고에 진학→대안학교 전형으로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입학→친척형님(한의사)의 한의원 일을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 후 학업과 병행→1년 만에 일어일본학과를 자퇴하고 김천대 물리치료과 옮김→졸업 후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군 입대→전역 후 연세대 보건과학과에 편입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병원, 요양원(헤민실버타운)을 거쳐 현재 3년차 물리치료사로 활동 중

- **장래 포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

- **그의 한마디** 이루고자 하는 방향의 길잡이인 '행복한 마음'을 따라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하다보면 기회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 **더 알고 싶다면** www.kpta.co.kr



물리치료사란 말 그대로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이다. 자신의 두 손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인 물리치료에 매력을 느껴 일을 시작했다는 김윤하씨는 3년 차 물리치료사이다.

그는 중학생 시절 강해지기 위해 배운 선무도를 계속하여 사범이 되는 꿈을 키워나가고자 대안학교 경주화랑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가 지금의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으로 자리 잡기까지 꿈을 찾아 한 걸음씩 내딛었던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화랑고 수업이 마음에 들었어요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윤하씨는 친구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강해지기 위해 무술을 시작했다. 태권도나 합기도처럼 흔한 무술은 배우고 싶지 않았던 그가 부모님의 권유로 배우게 된 무술은 불교 전통 무예 선무도였다. 선무도에 푹 빠져 지내던 그는 사범님으로부터 경주 골굴사에 선무도 총 본원이 있고, 그 옆에는 대안학교인 화랑고등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전부터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화랑고에는 선무도 수업이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선무도도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그의 부모님은 대안학교에 다니겠다고 하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주셨다. 아들의 선택은 믿고 지지해주시되, 책임은 스스로 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부모님의 교육철학이었다. 그는 획일적인 교육 방식으로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기보다,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랑고의 수업이 마음에 들었다.

“국어시간에는 토론을 자주 했고, 과학시간에도 <서프라이즈>라는 방송을 보며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과 어울리는 수업이 많았는데, 한번은 역사 수업 시간에 계곡으로 가서 선사시대를 재현하라는 과제를 받았어요. 근처에서 풀을 뜯어 와서 옷을 만들어 입고, 돌담도 쌓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선사시대의 모습을 만들었죠.”

화랑고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주에서 있어, 가족들과 만날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 화랑고 사람들과 지내는 생활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인성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화랑고 생활이 만족스러웠다.

두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이었어요

선무도 사범이 되고자 화랑고에 다녔던 윤하씨는 졸업을 앞두고 목표를 잃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찾지는 못 했지만, 무언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에게 담임선생님은 성공회대의 대안학교 특별전형에 대해 알려주며 대학을 다닐 것을 권하였다. 나아갈 목표를 찾지 못했던 그는 조금이나마 흥미가 있는 일어일본학과를 선택했다.

“사실 일본이 싫었어요. 역사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깐요. 그런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좋았어요.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한 이유가 궁금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문화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일어일본학과에 들어갔죠.”

그는 대학에 다니며 토요일이면 한의사인 친척형님이 일하는 병원

일을 돕게 되었다. 자격증이 있어야 병원 일을 할 수 있다는 친척형님의 말에 그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렇게 휴일이나, 방학을 이용해 병원 일을 돕던 그는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흰 가운을 입고 있는 그를 의사나 의대생인줄 착각한 환자들은 그에게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럴 때마다 원장님에게 물어보라는 말만 반복해야 하는 그는 그런 자신이 싫어졌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 친척형님께 조언을 구하니깐 물리치료를 권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 평생 목표가 두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었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누군가를 치료하는 직업인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은 그런 제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어학을 공부하는 것은 좋았지만, 물리치료사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그가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었다. 그렇게 그는 1년 만에 일어일본학과를 자퇴하고, 물리치료과가 있는 김천대에 들어갔다. 그는 3년간 물리치료에 대해 공부하고, 졸업 후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군 입대를 했다. 군 전역 후 연세대 보건과학과에 편입하여 낮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대학에 다니며 공부하는 생활을 하던 그는 올해(2014년) 졸업장을 받았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어 편입을 했어요. 사람들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일컬어 스카이(SKY)라고 부르잖아요. 왜들 그렇게 ‘스카이’를 꿈꾸는지 궁금해서 연세대를 선택했죠. 대안학교 출신들 중에는 스카이에 들어가는 경우

가 많지 않거든요.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연세대에 다니며 많은 걸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제 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최종목표예요

“물리치료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실 잘못된 습관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환자는 그런 습관에 길들여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증상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치료를 함에 있어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도움만 줄 뿐이에요. 결국 낫는 것은 환자 몫이죠. 공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환자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물리치료사입니다.”

대학 공부와 함께 병원, 요양원 등에서 물리치료사 일을 해오던 윤하씨는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물리치료사가 되어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디선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똥한 소리 같지만, 제 인생의 최종목표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 자신에 대해 알아야겠죠. 제 안에 숨어있는 감정과 마주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제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불행한지

를요. 저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그가 이토록 자신에 대해, 사람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화랑고에서의 생활한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화랑고에서 마음공부라는 것을 했었어요.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 마음을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며 이런 저런 상황에 부딪치다보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무작정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는 마음공부의 결과물로 피아노 앨범을 만든 적도 있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그 때 그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피아노를 치다가 문득 작곡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작곡하고, 연주한 곡으로 앨범을 만들었던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돼요. 대신에 스스로를 지켜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 할 수 없다면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지, 개인의

능력 문제인지, 사회의 문제인지,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해 보는 것이죠.”

윤하씨는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의 정의를 먼저 정리해보라고 조언했다. “심장은 매 초 매 초 자신의 일을 성공시켜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살아 있는 자체에 감사하며 살아 있음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은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정도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기회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불안하겠지만 행복한 기분을 따라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하다보면 기회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가든, 돌아서 가든 어떻게든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꿈과 만나다

만든 사람들

기획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김환식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최승복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사무관 김아영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주무관 이금희

연구 / 집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손유미·송창용·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신민정·양성은·양정은·이윤진

동아시아언스 과학전문기자 고희관·김상연·변지민·신선미·염지현·오가희

우아영·윤신영·이우상·이재웅·전승민·최영준

캠퍼스멘토 대표 안광배

좋은정책연구소 대표 이경희

자문

라이스메이커 민영범 대표 / 박종례 작가 / 김지은 작가